

김선빈 부담 덜기...백업 유격수 찾기



김선빈이 타격 1위를 달리며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맹활약하고 있지만 KIA 타이거즈의 '백업 유격수' 고민은 여전하다.

‘공격형’ 김주형 투입 실패 타격 좋은 최원준 여유 부족 이적생 유재신에 눈길

KIA 타이거즈의 또 다른 유격수 시험이 성공할까? 1위 행보 속에서도 풀지 못한 KIA의 고민 중 하나는 ‘유격수’다. KIA에게 유격수는 가장 강한 전력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주전 유격수 김선빈 하나만을 놓고 봐서는 리그 최고의 전력이다. 김선빈은 21일 현재 0.387의 타율을 찍으며 ‘타격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송구·뜯공 처리에서 안정감을 더하면서 수비에서도 김선빈은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우뚝 섰다. 유격수 중 가장 많은 100경기를 소화했지만 에러는 9개로 묶여 두었다.

김선빈의 활약에 힘입어 KIA는 공·수에서 지난해와 다른 매서움을 보인다. 올 시즌 KIA의 달려진 전력으로 우선 꼽히는 자리가 유격수지만, 김선빈을 빼어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시즌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지만 KIA는 아직 확실한 유격수 백업을 찾지 못했다.

강한울의 이적과 박찬호의 입대로 새로운 유격수 찾기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공격형 유격수’로 김지성과 김주형까지 투입되기도 했지만 수비에서의 실이 더 컸다. 김선빈의 발목 부상 속 유격수로 투입됐던 ‘아기 호랑이’ 최원준도 공격으로는 형님들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수비가 약점이다.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송구와 수비할 때의 여유가 부족하다.

전전후 수비수 고장혁은 수비에 비해 부족한 타격으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시 2군으로 내려간 상황. 지난 19일 고장혁과 김호령을 엔트리에서 말소한 KIA는 ‘이적생’ 유재신과 최정민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유재신은 지난 7월 31일 투수 김세현과 넥센에서 건너온 선수, 최정민도 지난 5월 SK와의 4-4 트레이드 때 KIA로 이적했다. 최정민에게는 이번이 두 번째 1군 풀업. 유재신에게는 처음 KIA 유니폼을 입고 선 1군 무대다.

특히 유격수로 새 출발을 한 만큼 유재신에 더 눈길이 간다. 내야수 출신의 유재신은 빠른 발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외야수로 전향을 했었다. KIA로 트레이드 되어오면서 팀 사정상 다시 내야수로 자리를 바꿨다. 2군에서 유격수로 준비를 했던 유재신은 지난 19일 SK와의 경기에서 김선빈의 대수비로 들어가 KIA 데뷔전을 치렀다.

유재신은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했었다. 차라리 빨리 타구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낮은 팀에서 낮은 유격수 자리에 선 소감을 밝혔다.

또 “안 했던 것을 하느라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트레이드로 와서 내 자리가 없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겠다는 마음이다”며 “1위 팀이다. 좋은 팀에서 역할을 하게 돼서 기쁘다”고 언급했다.

계속된 실패 속에 가중되고 있는 김선빈의 부담감을 덜어줄 ‘유격수 찾기’가 KIA의 가을과 미래를 위한 숙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U대회 종합3위 목표 순항

중간 합계 1위



우리나라가 지난 19일 개막한 제29회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초반 메달 레이스에서 종합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대회 사흘째인 21일에만 한국은 유도, 태권도 품새, 롤러, 다이빙에서 금메달 7개를 수확해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 등 총 18개의 메달로 종합 순위 1위에 자리했다.

2위는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북한이다. 북한은 강세 종목인 역도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었다. 주최국 대만이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2개를 얻어 3위에 올랐다.

‘한국 다이빙의 마래’ 김영남(21)은 지난 21일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53.00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20일 우하람(19)과 함께 출전한 남자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선수단에 이번 대회 첫 메달을

안겼다. 메달 박스 태권도 품새 종목에선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가 나왔다.

여자 단체전에 출전한 권여원, 윤지혜, 박소정이 평점 7.900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남자 단체전에서도 배종범, 조정훈, 지호철이 7.860점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중주국의 체면을 세웠다.

롤러 김진영(안동시청·위덕대)과 안이슬(경주시청·순천향대 대학원)도 금메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진영은 롤러 T(타입트라이얼) 300m 결승전에서 23초 949의 기록으로 대만의 카오마오체를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 열린 여자 T 300m에서 안이슬이 25초 805로 금메달 배턴을 물려 받았다.

유도 이승수(여수시청·81kg급)와 광동환(하이원·90kg급)도 각각 러시아 선수들을 제치고 시상대의 꼭대기에 섰다. 한국은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 22개 종목, 41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2년 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이번엔 금메달 23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3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합뉴스

백승호, 스페인 프로축구 지로나FC 이적

3년 계약...올 시즌 2군서

한국 축구의 마래 백승호(20)가 스페인 프로축구 지로나FC로 이적했다.

지로나 구단은 2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출신 미드필더 백승호가 지로나에 합류했다”며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우선 페랄라다-지로나 B(2군)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백승호는 아버지 백일영 연세대 교수 등 가족과 함께 지로나 구단 사무실을 찾아 계약서에 공식 사인했다.

백승호가 뛰게 될 지로나는 지난 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2위를 차지해 1부 리그인 프리메라리가로 승격한 팀이다. 백승호는 이번 2017-2018 시즌에는 2군인 페랄라다에서 뛰게 된다.

지난 시즌 전 소속팀 FC바르셀로나B에서 출전 시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백승호는 우선 새 동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1년간 페랄라다에서 뛰고, 2018-2019시즌부터 지로나 1군에 합류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적 조건으로 나쁘지 않다. 원 소속팀 바르셀로나B와 남아 있던 1년 계약을 해지하고 지로나로 완전히 이적하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 내년 평창올림픽 개최편 4대 국제 이벤트 ‘그랜드슬램’

88서울 올림픽·한일 월드컵·세계육상 개최

내년 2월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일대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동·하계올림픽은 각 나라 특급 스포츠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이벤트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국제육상연맹(IAAF) 주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나름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축구는 단일 종목으로선 세계에서 최대 인기를 구가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47개로 최다 메달이 걸린 육상은 하계 종합대회의 ‘1번’ 종목이다.

그래서 축구와 육상의 슈퍼스타가 모두 나서서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인기는 올림픽에 뒤지지 않는다.

동·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아울러 이른바 스포츠 4대 국제 이벤트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 스포츠 4대 국제 이벤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한국은 냉전 체제를 주도한 미국과 구소련의 참가로 평화와 화합의 마당이 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2002년에는 일본과 공동으로 한·일 월드컵을 성황리에 마쳤다. 두 나라가 월드컵 대회를 공동 개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메이저 이벤트를 성공 개최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건너치 못했다.

이젠 평창의 차례다. 정부는 북한의 참가를 꾸준히 권유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굽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1개도 아닌 4개나 유치한 건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뜻한다.

역사를 보면, 부유한 유럽의 국가와 초강대국 미국,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꿈꾸는 중진국들이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회에 참가하는 수 만명의 선수단과 관광객이 넣는 경제 파급 효과와 관광·홍보를 노리고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도전하는 나라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만루 홈런’을 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다.

‘빅 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도 아직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다 개최하지 못했다. 현재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다 개최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러시아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각각 개최하면 이번엔 올 시즌

연합뉴스

덕아웃 T 특특

▲(경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 선수들에게는 반가운 일요일 휴식이었다. KIA는 지난 20일 SK와의 홈경기가 우천 취소되는 등 3주 연속 일요일 경기를 비로 치르지 못했다. 덕분에 일요일-월요일로 이어지는 휴식을 취하게 된 KIA 선수들, 김기태 감독은 22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경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천취소가 되면 선수들이 좋아하더라”며 웃었다. 또 “우리 선수들 힘든 경기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가장 체력적으로 힘들 때이기도 하다. 7월 더울 때는 정신 없이 했고, 조금 시원해지다가 다시 비 온 뒤 습기가 많아

김기태 감독 “선수들 우천취소 좋아하더라”

등판 줄어든 김윤동 “쉬면서 돈 벌고 있어요”

지는 등 힘든 것이다”고 말했다. 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특히 반가웠던 비. 고질적인 발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김선빈과 손바닥이 불편한 안치홍은 “신개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치홍은 지난 두산 원정에서 수비 도중 오른손 손바닥뼈 타박상을 입었다.

▲쉬면서 돈 벌고 있어요 = 비와 떨어진 팀 승률 탓에 마운드에 오르는 날이 부쩍 줄어든 불펜진이다. 22일 경기 전까지

임창용이 8월 13경기 중 5경기에 모습을 드러냈고, 김윤동은 4차례 등판에 그쳤다. 김세현도 이적 후 4경기를 소화한 게 전부다. 김윤동은 8월 등판 날짜에 대한 이야기에 “쉬면서 돈 벌고 있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김윤동은 “그래도 예전과 달리 오랜만에 등판해도 감을 빨리 찾는 것 같다.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다”며 “연습을 할 때 그렇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상했어요 = 마운드에 오르는 게 좋은 투수진 ‘막내’ 남재현이다. 고졸 2년 차 남재현은 지난 6월 2일 삼성전을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러나 6월 4일 두 번째 등판 후 염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그리고 7월 9일 다시 1군에 호출됐던 남재현은 7월 19일 넥센전 등판 후 어깨가 좋지 않아 다시 엔트리에서 빠졌다. “괜찮다. 던질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던 남재현의 마음과 달리 괜한 부상을 우려한 코칭 스태프의 판단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던 남재현은 지난 19일 세 번째 1군 등목이 됐다. 남재현은 “속상했다”고 웃으며 1군으로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